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간호 이미지 논문 분석: 2003년부터 2014년도까지

신 성 레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Analysis of Studies on Nursing Image Performed in Korea from 2003 to 2014

Shin, Sung Rae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review and summarize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image of nursing in Korea and to explor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Thirty-five studies published from 2003 to 2014 were reviewed, and th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criteria adopted from Kim & Lee (2003). **Results:** There was a thre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ies compared to a prior analysis study. Of these studies 50% were carried out with nursing students and 71.4% were survey type research.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tients, and guardians had positive images of nursing compare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health related personnel. Experience of hospital admission or patient visit did not influence the nursing image of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career and clinical practicum were related to nursing image among nursing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esteem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imag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cent trends of nursing research on nursing image indicate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eliminate negative stereotypes and build a more professional image for nursing are recommended.

Key Words: Nursing, Imag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와 효과적 자원 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되고 있다[1]. 또한 최근 증가되고 있는 노인인구,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 급속한 파급효과를 가진 감염성 질환의 도래, 의료비용 상승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전문 지식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간호전문직은 지난 수 십년간의 연구와 혁신 그리고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축적된 지식 기반의 고유한 지식체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토콜과 지침서들을 개발하여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간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는 일방적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던 과거 사회적, 종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TV, 소설,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들의 직업, 의사 보조역할, 저임금등의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주요어: 간호, 이미지

Corresponding author: Shin, Sung Rae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139-742, Korea.
Tel: +82-2-3399-1588, Fax: +82-2-3399-1594, E-mail: shinsr@syu.ac.kr

Received: Aug 10, 2015 | **Revised:** Aug 30, 2015 | **Accepted:** Sep 14,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다[2].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하며 왜곡된 전문직의 이미지는 간호사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신뢰감을 감소시켜 간호전문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전문직과 사회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지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을 가리키며 [3] 간호 이미지란 간호사나 타인 즉, 동료, 일반인, 환자, 가족 등이 간호에 대해 생각하는 느낌을 가리킨다[4].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는 학생들의 간호전공 선택과[5],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며 간호사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

Strasen[7]의 자기이미지 모델(self-image model)에 따르면 이미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환경적 영향, 사회적 경험, 동료나 또래들의 영향에 따라 풀 지워지며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그 사람의 행동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는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간호전문직의 이미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이들 주변사람들의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는 개별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요약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향후 전문직 이미지 향상을 위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간호이미지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시행되어져 왔으며[8] 2000년에 들어서는 간호이미지와 가치[9], 광고의 영향, 이미지와 간호행위, 학생과 간호사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간호이미지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과 Lee[11]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간호이미지에 대한 논문분석을 한편 시행 했을 뿐 지금까지 간호이미지의 연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간호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2년간 간호이미지에 대한 논문의 특성을 분석하고 간호학문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간호사의 이미지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대상자, 유형별 발표학술지, 연구설계유형 및 표본추출방법, 측정도구,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과 연구비 지원여부 그리고 간호이미지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국내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경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2. 자료 선정기준

사전에 설정한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연구의 원문을 선택, 검토하였으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Korea Classification Index (KCI)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일 것.
- 특정 분야(예: 정신간호사)의 간호 이미지만을 다룬 연구가 아닐 것
-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아닐 것
-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 것

3. 검색 전략 및 자료수집

1) 검색전략

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KoreaMed, 국회도서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L), 한국학술정보(KISS), 과학기술학회마을의 국내 핵심전자 DB에서 자료 검색 및 수집을 실시하였다. 검색식은 먼저, 간호이미지 연구들의 주제어와 연구제목을 통해 중심 주제어를 확인한 후 검색식을 구성하여 관련논문을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색식은 간호, 간호사(P)와 이미지(O) 및 관련 용어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간호 OR 간호사 OR 전문간호 AND, 2) 이미지 OR 자기이미지 OR 사회적이미지 OR 자기인식 OR 인식 OR 상, 3) 대중매체 OR 미디어 OR 신문 OR TV 등으로 병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자료 검색을 위해 검색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수기로 검색하여 자료검색을 보완하였으며 관련원문을 전자DB에서 찾을 수 없을 때 논문을 오프라인에서 찾아 활용하였다. 기간은 개별 전자DB에서

2003년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설정한 후 검색하였다.

2) 자료수집

국내 핵심 전자DB를 이용하여 검색된 논문은 체계적 논문 분석 경험이 있는 연구보조원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Refworks)에서 중복자료를 제거하였다. 외부 서지 반출이 되지 않는 전자DB는 엑셀 파일을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였다.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통해 관련논문을 확인하였고, 선정기준에 따라 원문을 선택, 검토하였다.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논문을 찾기 위해 검색한 결과 국내 자료는 총 1,119편이 검색되었고, Refworks와 엑셀 파일 전체에서 406편의 중복자료가 제외되고 총 713편이 선정되었다. 총 713편 중 641편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며 간호사의 자아 존중감, 정체감등 간호전문직 이미지분석연구 주제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한 후 72편이 일차적으로 선정되었다.

일차적인 검색으로 선정된 72편의 논문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할 연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문을 검토하며 본 연구에서 사전 설정된 자료선정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72편 중 35건은 교내 학술지와 KCI 미

등재 학술지인 회색논문으로서 제외되었다. 35편을 제외한 39편 중 4편이 추가로 제외되었는데 1편은 논문분석으로, 2편은 논문에서 다루는 간호사의 범위가 좁아서, 1편은 우리나라 대상이 아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총 35편이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Figure 1).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논문분석 틀은 선행연구[11-13]의 분석기준을 참조하여 보완하였고 연구대상, 유형별 발표학술지, 연구설계 및 표본추출방법, 측정도구,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 및 연구비 지원여부, 그리고 간호이미지 관련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사진, 책등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간호이미지와 학생, 일반인, 간호학생 및 간호사, 병원 관련 등의 인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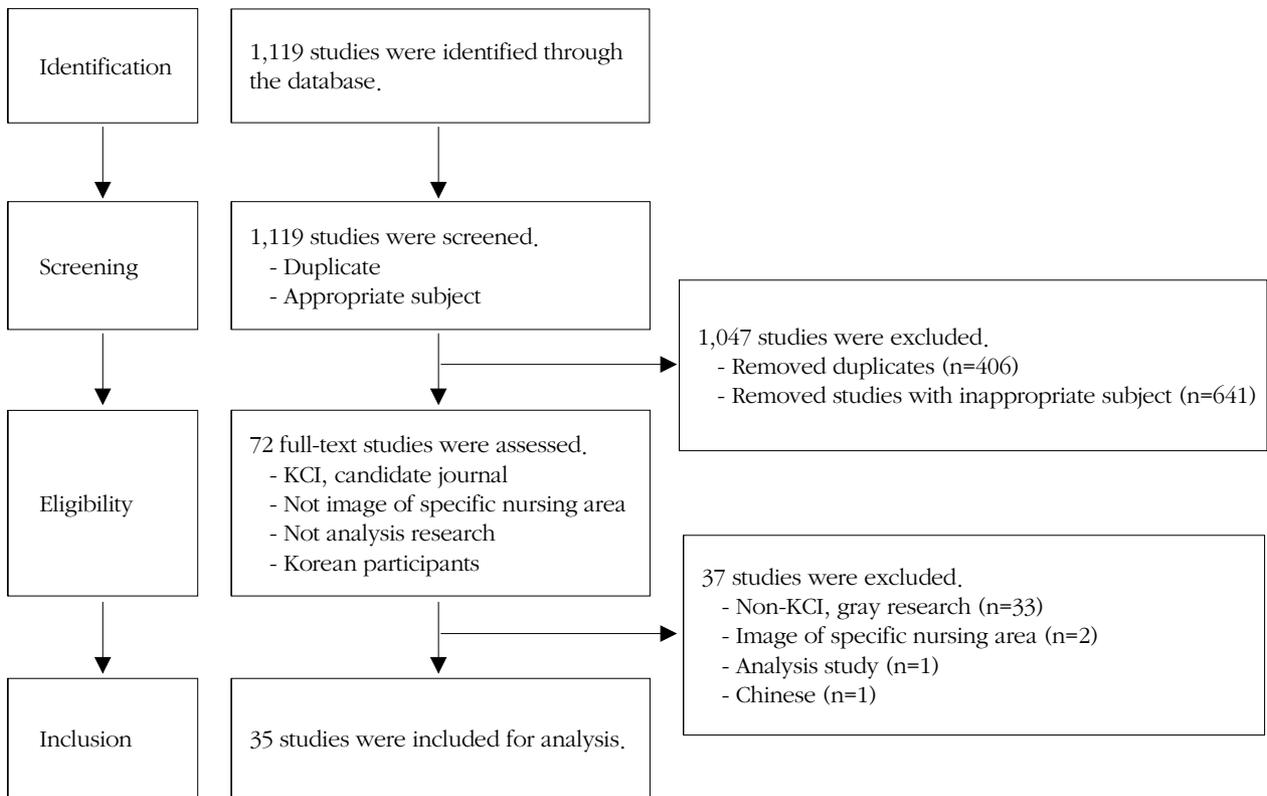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2) 유형별 발표학술지

발표학술지는 KCI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KCI등재와 KCI등재후보로 분류하였고 그 후 KCI등재 학술지 내에서 각 학회지별 논문수를 제시하였다.

3) 연구설계 및 표본추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기타 연구로 대분류한 다음 양적 연구를 비 실험연구와 실험연구로 분류하였다. 비 실험연구에는 서술적 조사연구, 종단적 조사연구,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서술적 비교조사연구, 실험연구에는 순수 실험연구, 유사 실험연구, 원시실험연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타 연구는 방법론적 연구, 내용분석연구, 요인분석연구로 분류하였다.

표본추출은 확률표출, 비 확률표출, 기타로 크게 분류한 다음 확률표출을 단순 무작위 표집, 계통 표집, 층화 무작위 표집, 군락표집으로 분류하였고, 비 확률표출은 편의표집, 할당 표집, 의도표집으로 분류하였다, 기타에는 Q방법연구와 일부 내용분석연구를 포함시켰다.

4) 측정도구

측정도구를 발표한 연도순으로 기록하고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해서 사용한 경우 다른 항목으로 표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개발에는 Q방법연구, 내용분석연구, 질적 연구가 포함되었다.

5)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 및 연구비 지원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구성은 크게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하였다. 하위항목으로 학계, 대학원생, 간호사로 구분하였고, 학계는 간호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비간호학 교수로 나누었고 대학원생은 석사와 박사로 나누었다. 논문에 참여한 저자에 따라 연구비 지원 여부를 구분하였다.

6) 간호이미지 관련변인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변인에서는 본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던 35편의 논문 중 차이검증이나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던 23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사전연구 [11]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23편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선행변인은 집단별 특성, 일반적 특성, 간호사를 접한 경험, 간호학생, 학생집단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결과변인에서는 분석된 논문에서 측정되었던 변수 즉 전공만족도, 자아전문직관 등과 간호이미지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경우 ‘순상관관계’와 ‘역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차이검정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경우를 확인하여 차이가 나타난 경우 ‘집단차이’로 집단 간 차이에 없는 경우는 ‘관계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

간호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한 논문이 23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전공대학생(6.5%), 고등학생(6.5%)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수도 간호학생이 5,996명(5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전공대학생이 1,399명(12.7%), 중학생이 675명(6.1%) 순이었다(Table 1).

2. 연구설계 유형 및 표본추출방법

양적 연구에서는 비 실험연구가 25건(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연구인 순수실험연구, 유사실험연구, 원시실험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비 실험연구 중에서 서술적 조사연구가 17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질적 연구는 1편(2.8%)으로 나타났다. 표본추출방법 중 2편(5.7%)이 확률표출방법이었으며, 25편(71.4%)이 비 확률표출방법 중 편의표집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측정도구

총 35편의 논문 중 65.7%인 23편의 논문이 기존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34.2%인 12편이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도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Yang[15]의 간호사이미지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한 논문이 19편(54.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4.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 및 연구비 지원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 및 연구비 지원을 분석한 결과 총 저자 수는 논문 35편에 걸쳐 74명이 참여하여 논문 한 편당 평균 저자 수는 2.1명으로 나타났다. 논문 35편의 제1저자는 학계가 31명(88.5%)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간호학교수가 24명(68.1%)으로 가장 많았다. 제1저자로 참여한 임상간호사의 수는 1명(2.8%)으로 나타났다. 공동저자 분석에서는 학계 32명(82.0%)중, 간호학교수가 29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Study Subjects, Design and Measurement Tools of Selected Studies (N=35)

Items	Variables	Categories	n (%)	
Subject*	Media	Pictures	1 (2.1)	
		Textbook	2 (4.3)	
	Students and public	Elementary school	2 (4.3)	
		Middle school	2 (4.3)	
		High school	3 (6.5)	
		Teacher	1 (2.1)	
		Non-nursing students	3 (6.5)	
		General public	1 (2.1)	
	Nurses, student nurses	Nursing student	23 (50.0)	
		Hospital related personnels	2 (4.3)	
Doctors		2 (4.3)		
Hospital employees		2 (4.3)		
Patients and family		2 (4.3)		
Design	Non-experimental	Descriptive survey research	17 (48.5)	
		Longitudinal survey research	1 (2.8)	
		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	6 (17.1)	
		Descriptive comparative research	1 (2.8)	
	Experimental	True experimental research	0 (0.0)	
		Quasi- experimental research	0 (0.0)	
		Pre-experimental design	0 (0.0)	
	Qualitative		1 (2.8)	
	Others	Methodological research	6 (17.1)	
		Content analysis research	3 (8.5)	
		Factor analysis research	0 (0.0)	
	Sampling	Probability sampling	Simple random sampling	1 (2.8)
			Systematic sampling	1 (2.8)
Stratified random sampling			0 (0.0)	
Cluster sampling			0 (0.0)	
Nonprobability sampling		Convenience sampling	25 (71.4)	
		Quota sampling	0 (0.0)	
		Purposive sampling	0 (0.0)	
Others		Q-methodology, content analysis researches	8 (22.8)	
Measurement scale		Lee et al, Jang SH[14], modified and supplemented		3 (8.5)
		Yang, [15]		10 (28.5)
	Yang, [15] modified and supplemented		6 (17.1)	
	Yang, [15] and Kim & Kim[16] modified and supplemented		3 (8.5)	
	Kim & Kim [16] modified and supplemented		1 (2.8)	
	Developed by researchers [†]		12 (34.2)	

*Duplicated count; [†]Q methodological researches, content analysis researches, a qualitative research.

공동저자로 참여한 임상간호사는 5명(12.8%)을 차지하였다. 논문을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분석된 논문 35편 중 28편(80.0%)은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7편(20.0%)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5. 간호이미지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집단별 특성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환자 및 보호자와 병원관계자 간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는 초등학생군이 중학생군에 비해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보호자와 병원관계자 사이에서는 환자 및 보호

Table 2. Funding Source and Composition of Authors

Variables	Self-funded research	Funded research	Total
First authors			
Academic field	10 (35.7)	2 (28.5)	12 (34.2)
Professor in nursing	3 (10.7)	1 (14.2)	4 (11.4)
Associate professor	7 (25.0)	1 (14.2)	8 (22.8)
Assistant professor	4 (14.2)	1 (14.2)	5 (14.2)
Part-time lecturer	1 (3.5)	1 (14.2)	2 (5.7)
Professor in non-nursing major			
Graduate student (PhD)	3 (10.7)		3 (8.5)
Clinical nurse		1 (14.2)	1 (2.8)
Co-authors			
Academic field	13 (41.9)	3 (37.5)	16 (41.0)
Professor in nursing	1 (3.2)	1 (12.5)	2 (5.1)
Associate professor	10 (32.2)	1 (12.5)	11 (28.2)
Assistant professor	1 (3.2)	1 (12.5)	2 (5.0)
Part-time lecturer		1 (12.5)	1 (2.5)
Professor in non-nursing major			
Graduate student (PhD)	1 (3.2)	1 (12.5)	2 (5.1)
Clinical nurse	5 (16.1)		5 (12.8)
Average number of authors per research paper	2.1	2.1	

자 군이 병원관계자 군에 비해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종교가 간호 이미지와 높은 빈도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령, 학년 등의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사를 접한 경험에서 가장 많이 분석된 변인은 입원경험으로 나타났으나 총 13건의 논문에서 분석된 입원경험은 모두 간호 이미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실습과 TV등 영상매체노출 정도에 따라 집단 간 간호이미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분석결과 학과 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직의 의미에 따라 간호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다.

결과변인으로 설정된 전공만족도, 자아전문직관, 자아존중감 등은 이들이 긍정적일수록 간호이미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과거 간호이미지에 대한 논문분석연구[11]에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학회지나 학위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던 총 18편의 간호이미지 관련 논문 중 석, 박사 학위논문 6편을 제외

한 전문 학회지 출판 논문이 12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03년도부터 2014년의 총 12년간 35편의 간호이미지 관련 논문이 출판된 것은 그동안 간호이미지 관련 연구가 3배 가까이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간호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1990년대에는 간호이미지 관련 논문을 출판한 전문학술지가 단 6편이었고 본 연구에서 검색된 이미지 관련 논문게재 학회지 수는 총 13종류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35편의 간호이미지 관련논문은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수치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최근 증가된 간호교육 기관수와 연구자들의 수를 고려 할 때 추후 간호이미지 개념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관련 논문 중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대상자가 간호학생(50.0%), 비전공대학생(6.5%), 고등학생(6.5%) 순으로 1990년대 연구[11]와 비교할 때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간호이미지의 주체라 볼 수 있는 간호사 대상의 논문이 35편중 2편(4.3%)[17,18]에 그쳐 전문직 내 간호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학문적 접근은 매우 저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 연구 중 병원의 고객[17]이나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등 병원직원[19]을 대상으로 간호 이미지를 파악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간호사들이 갖

Table 3. Relations between Nursing' Image and Related Variables

(N=23)

Items	Variables	Categories	Cor. (+)	Cor. (-)	Diff.	Rel. (-)	Total
AV	Groups	Elementary > Middle			1		1
		Patients, guardians > hospital employees			2		2
General		Gender			3	8	11
		Age			3	7	10
		Education			1		1
		Religion			3	8	11
		Marital status				3	3
		Teachers				1	1
		Grade			4	4	8
		School			1	1	2
		Employment period				1	1
		Interpersonal relations, personality			1		1
		Degree			1		1
		Work experience				1	1
		Occupation			1	1	2
		IN		Hospitalization experience			
Period of hospitalization					1	1	2
Patient visitation experience						3	3
Nurses in hospital						1	1
Nurses in family					2	4	6
Clinical practice					2	1	3
Media (TV)					2	1	3
Books						1	1
Ability to differentiate between registered nurses and assistant nurses						1	1
SN				Period of clinical practice			2
		Choice of major			1		1
		Grade			1	2	3
		Major (nursing > non-nursing)			3		3
		Club activity			1		1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1	1
		Career choice after graduation			1	1	2
		Motivation for application				4	4
		Period of admission				1	1
		Department satisfaction			3	1	4
		Attitude to clinical practice				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		2
		Relationship with nurses				1	1
		Relationship with patients				1	1
		Ranking when applying to nursing				1	1
		Participation with other college students				1	1
		Completion of Fundamental Nursing			1		1
		Meaning of nursing			3		3
		Location of collage				1	1
		Field of future area for job choice				1	1
SG		Gend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1	1
		Gende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		1
		Hospitalization (elementary, middle, high)				1	1
		Nurse in family (elementary, middle, high)				1	1
OV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2		2		2
		Nursing professional values	2				2
		Self-esteem, professional self-concept, social recognition, nurses' professionalism, role of nursing practice, professional socialization	1				1

Cor. (+)=Positive correlation; Cor. (-)=Negative correlation; Diff.=Difference; Rel. (-)=No relation; AV=Antecedent variables; IN=Interaction with nurses; SN=Student nurses; SG=Student group; OV=Outcome variables.

고 있는 간호이미지의 영향요인, 유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진, 이직, 충원등과의 관계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Strasen[7]의 자기이미지 모델(self-image model)에 따르면 이미지는 동료나 또래 등의 사회, 환경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간호 이미지를 파악, 중재개발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는 간호이미지 구성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유능한 인재확보 차원과 전문직의 정체성 재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가 이들의 업무 만족도나 이직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이해하는 간호전문직의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 연구가 요구된다[5, 10].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 스스로 가지는 간호 이미지는 직업 만족도, 이직, 업무 행태 그리고 전문직 간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추후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전문직 내 구성원들의 간호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간호이미지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1990대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학술지 수는 총 13종류로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고 각 학회지에 고루 분산되어 게재가 이루어짐이 확인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이 간호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아직도 대부분의 연구가 비 실험연구인 서술적 조사연구나 상관관계 연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험연구는 지난 Kim과 Lee[11]의 분석 결과와 같이 13년간 단 한편도 수행되지 않아 서술적 조사연구결과의 효과적 활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이미지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음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제는 충분한 서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특정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간호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간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규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중재전략 마련을 위한 창의적 실험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간호이미지 관련연구들의 표본추출방법도 편의표집을 이용한 연구가 71.4%나 차지한 것은 Kim 과 Lee[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이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실험연구 보다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결과와 관련이 있겠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의 표본구성에 있어 확률표출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활력증상이나 통증과 같이 객관적 측정에 의해 수량화 될 수 있는 생리적 변수와는 달리 이미지와 같은 사회 심리적 변

인은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의 질이 연구의 전반적인 질을 결정한다[21].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의 34.2%는 연구자가 직접 도구를 개발하여 Kim과 Lee[11]의 분석연구에서의 직접개발 비율 50.0%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분석논문 35편중 23편에 해당하는 65.8%는 약 4가지 도구를 연구목적과 특성에 따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개발된 도구란 해당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목적과 표적집단의 특성에 맞게 도구에 사용된 용어의 수준이나 척도의 종류를 선택하였고 이에 따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 개발된 도구를 사용할 경우 연구 전 개별 연구목적에 맞게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의 재검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연구의 표적 집단에 적절한 도구인지 검토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분석대상 연구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Yang[15]의 도구가 환자, 보호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호 이미지 연구[22, 23]에서 사전 타당성 검증 없이 사용된 점은 추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 중 하나이다. 반면, Kim과 Lee[11]의 분석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도구개발당시의 신뢰도나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표기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단, Kim과 Lee [11]가 분석을 실시한 1990년부터 2002년까지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약 24년 동안 다양한 도구가 소개되고 사용되었으나 순수 간호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목적의 연구는 한편도 없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 변화를 고려할 때 현 시대에 평가되어야 하는 간호 이미지 요소들이 고려된 도구개발이 필요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35편 연구의 연구자 구성과 연구비 지원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중 80%에 해당하는 28편에서는 연구비 지원이 없었고 20%(7편)만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나 지원된 연구비는 모두 연구자들의 소속 대학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의 구성에서도 68.1%가 간호대학 교수들이었으며 간호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다고 볼 수 있는 간호사는 제1저자에 단 1명만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간호이미지 연구는 임상에서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에 일시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학 교수들에 의해 편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직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의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정체성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미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과 대중매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미지 관련 연구는 전문가 집단에

서 포괄적, 체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직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은 창의적 연구의 동기 강화와 활성화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뿐 아니라 간호협회나 간호학회 그리고 간호사들이 속해있는 의료기관등으로 부터의 다양한 연구비가 정책적으로 책정, 공모, 지원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35개 논문들에서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변인들을 Kim과 Lee [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인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군이 중학생군에 비해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2,23] 환자 및 보호자군이 병원 관계자군에 비해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대[17,1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간호 이미지 형성통로는 대중매체인 TV가 가장 많았다는 연구[22]를 고려할 때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이미지 개선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간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연구와 정책제안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이미지와 관련된 변수는 Kim과 Lee [11]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입원경험이나 면회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간호이미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Kim 과 Lee[11]의 분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중 간호사 유무도 간호 이미지에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가 2배나 많게 나타나, 간호사가 환자의 입원, 보호자의 면회, 그리고 가족 내에서 그들과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국에서 수행된 간호이미지 연구[2, 20]에 의하면 간호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과 경험에 노출되며 긍정적 이미지를 얻게 되는 반면 일반인들은 대중매체로부터 형성된 고정관념에 의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일상 업무나 가정생활 중 간호의 긍정적 경험과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알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는 간호사의 업무나 일상생활을 통해 환자나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간호 이미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이미지 결정요소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간호사의 어떠한 업무나 행동이 일반인들에게 긍정,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필요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간호교육은 전공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지식과 기술의 습득

은 물론이고 간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하는 통로가 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분석결과 학과 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직의 의미에 따라 간호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고 학과지원 동기는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학과 만족도는 실습 전 간호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으나 실습 후와 졸업 전 간호 이미지와는 관련성이 없게 나타났으며 간호의 이미지는 임상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결과는 간호교육이 간호전공 학생들의 간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24]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연구결과[25]와도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졸업 후 간호사로 사회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간호전공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전문인의 자세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다는 학과 만족도와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변인 중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간호 이미지와 순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학생의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간호 이미지 관련연구가 간호이미지의 선행요인을 밝히거나 특정집단 간 간호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였다면 향후에는 긍정적인 간호이미지 형성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 연구를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여 지난 12년간의 연구현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내 핵심전자 DB를 이용하여 중복자료를 제외하고 검색된 총 35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논문분석은 연도별 발표논문 수, 연구대상자, 유형별 발표학술지, 연구설계 유형, 표본추출방법,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그리고 간호이미지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분석된 논문 중 50%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71.4%는 조사연구 형태의 비 실험연구로 실험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환자, 보호자가 병원관계자에 비해 긍정적인 간호이미지

를 가지고 있었고 입원경험이나 면회경험은 간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생의 학과 만족도와 실습만족도 그리고 간호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간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아전문직관 그리고 자아존중감등은 간호이미지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시키고 전문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규명연구, 간호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모색의 후속연구와 간호이미지 향상을 위한 중재연구 그리고 간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모색의 정책적 연구비 지원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Working together for health: The World Health Report. Geneva: WHO; 2006.
2. Hoeve TY, Jansen G, Roodbol P. The nursing profession: Public image, self-concept and professional identity. A discussion pap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4;70(2):295-309. <http://dx.doi.org/10.1111/jan.12177>
3.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Seoul: Korea University; 2009.
4. Soames C, Stevenson A, editors. Concise Oxford English dictionary. 11t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5. Kay, MN. The image of community nursing: implications for future student nurse recruitment. *British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2015;20(1):12-18. <http://dx.doi.org/10.12968/bjcn.2015.20.1.12>
6. Cabaniss R. Educating nurses to impact change in nursing's image. *Teaching and Learning in Nursing*. 2011;6(3):112-118. <http://dx.doi.org/10.1016/j.teln.2011.01.003>
7. Strasen L. *The image of professional nursing: Strategies for action*. Philadelphia: Lippincott, 1992.
8. Busby LJ. Sex role research on mass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1975;25(4):107-131.
9. Fealy GM. 'The good nurse': visions and values in images of the nur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4;46(6):649-656.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4.03056.x>
10. Price SL, McGillis Hall L. The history of nurse imagery and the implications for recruitment: A discussion pap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4;70(7):1502-1509. <http://dx.doi.org/10.1111/jan.12289>
11. Kim JA, Lee SH. Analysis of studies on image of the nurses performed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3;9(2):199-211.
12. Kim KH, Chang SO, Kang HS, Kim KS, Kim JI, Kim HS, et al. Trends in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9-2011.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19(3):383-391.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83>
13. Jun MH, So HS, Choi KS, Chung BY, Ryu EJ, Lee D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three nursing journal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2011;11(2):163-170. <http://dx.doi.org/10.5388/jkon.2011.11.2.163>
14. Jang SH. Survey on nurse's images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1998
15. Yang IS.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98;4(2):289-305.
16. Kim HJ, Kim HO.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1;7(1):97-110.
17. Jung MS. A study on image of nurses for promoting hospital internal marketing.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4;9(2):68-80.
18. Ha EH, Hyun KS. Nurses' self-image perceived by clinical nurses: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4;26(1):117-128. <http://dx.doi.org/10.7475/kjan.2014.26.1.117>
19. Han SS, Sohn IS, Lee MH, Choi KS. A study on nurse' image in a medical center.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3;8(1):113-125.
20. Morris-Thompson T, Shepherd J, Plata R, Marks-Maran D. Diversity, fulfillment and privilege: the image of nursing.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011;19(5):683-692. <http://dx.doi.org/10.1111/j.1365-2834.2011.01312.x>
21. Lee HK, Yang YH, Koo MO, Eun Y. *Introduction of nursing research*. 4th rev ed. Seoul: Hyunmoonsa; 2012.
22. Kim YM, Kang YS. Nurse's image perceiv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384-395.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84>
23. Cho KJ, Ji ES. Nurse image perceived b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4;9(1):83-90.
24. Sivberg B, Petersson K. Self-image, self-values and interpersonal values among newly graduated nurses. *Nursing Ethics*. 1997;4(5):407-422. <http://dx.doi.org/10.1177/096973309700400507>
25. Brodie DA, Andrews GJ, Andrews JP, Thomas GB, Wong J, Rixon L. Perceptions of nursing: Confirmation, change and the student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4;41(7):721-733.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4.02.009>

Appendix. List of Reviewed Studies

- Cho HH, Kim NH.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4):548-557.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548>
- Cho KJ, Ji ES. Nurse image perceived b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4; 9(1):83-90.
- Choi HS, Kim BH. Study on the subjectivity about professional image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04;9:109-133.
- Choi HS. Image of professional nurs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05;10:69-106.
- Choi HW, Jung MS. Nursing images appearing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und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7;37(3):391-400.
- Choi J, Ha HS.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9;15 (1):54-63.
- Ha EH, Hyun KS. Nurses' self-image perceived by clinical nurses: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4;26(1):117-128. <http://dx.doi.org/10.7475/kjan.2014.26.1.117>
- Ha YJ, Min S, Kim EA.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ory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mage and perception of the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405-412.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405>
- Ham YS, Kim HS.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19(3):363-373.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63>
- Han SS, Sohn IS, Lee MH, Choi KS. A study on nurse' image in a medical center.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3; 8(1):113-125.
- Jeong HS, Yoo YS.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0;24(1):29-38.
- Joo MK, Shin GY.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 (2):510-521.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510>
- Jung MS, Choi HW, Li DM. Analysis of nursing-related content portrayed i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under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1):33-42.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33>
- Jung MS. A study on image of nurses for promoting hospital internal marketing.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4;9(2):68-80.
- Kang HY, Go MH, Yang JJ, Kim SM.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3;33(6):792-801.
- Kim SD. Changes in the image of nursing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after history & philosophy of nursing co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3): 301-309.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3.301>
- Kim WO, Kang HS. Changes of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as every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4;10(1):68-74.
- Kim YJ. Study on the subjectivity about nursing student's image of professional nurse before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5):224-234.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5.224>
- Kim YM, Kang YS. Nurse's image perceiv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384-395.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84>
- Lee HJ. Image of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4;20(2):129-135. <http://dx.doi.org/10.14370/jewnr.2014.20.2.129>
- Lee JA.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3):325-334.
- Lee KH.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0;16(1): 26-34.
- Lee SH, Kim JA.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6;12(1):52-62.
-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 No JY, Park SJ, Bae DY.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2; 18(2):88-94.

- Oh DJ, Choi CJ, Kwon BE, Park YH.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64-72.
- Park SA, Kwon HJ, Kim HJ. The portrayal of nurses and physicians in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0;16(2):33-42.
- Park SJ, Park BJ. Content analysis of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6):3696-3705.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696>
- Seo EH.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and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9;15(4):610-616.
- Seong JA, Yeom EY, Do YS.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1):798-809.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798>
- Shin MS, Kim NH. Nurses' image perceived by the public: Subjective image of nurses and the image of nurses in mass medi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14(2):937-948.
- Wee H, Park YR, Song MS. High school boys' images of men as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20(2):118-128.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2.118>
- Yang JJ.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3;9(1):64-72.
- Yeun EJ, Han SY, Lee IJ. Subjectivity on nursing imag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10;21:179-194.
- Yu SY. What is perceived the image of nurses?: Comparison major and non-major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0):353-361.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353>